

# “음식과 5·18 접목한 전시 준비중이죠”

‘장동콜렉티브’ 큐레이터 김소진·이하영  
5월 시립미술관 40주년 기념전 참여  
국가기록원·5·18 재단 전시 선정  
25일까지 여성소재 전시 진행중  
조선대 미학미술사 전공 동갑내기



2인조 여성 큐레이터 그룹 ‘장동 콜렉티브’를 주목한 건 연초 발표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라인업을 보고서다. 미술관이 올해 야심차게 준비중인 5월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별이 된 사람들’전에 참여하는 인도의 실라 고우다, 한국의 임옥상 등 국내외 쟁쟁한 작가들 사이에서 이름도 낯선 신진 그룹은 단박에 눈에 띄었다.

장동 콜렉티브는 스물여섯 동갑내기 김소진·이하영으로 구성된 독립큐레이터 팀이다. 조선대에서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두 사람은 2018년 졸업작품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시와 프로젝트들을 기획해왔다.

두 사람이 기획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This is Our Green place: 분노 이후를 상상하기’ (25일까지)전은 김은지·이경옥·강수지 작가를 초대해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거두고 ‘평등’과 ‘공존’을 위해 연대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분노 이후의 세상과 분노 너머의 것들을 상상해 본 전시다. 유·스퀘어 청년작가 공모 선정작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탐블벅’에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 (291만원·126%)해 눈길을 끌었다.

평면회화, 영상, 설치 작업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짜임새 있는 공간 배치 등이 돋보였다. 특히 두 사람과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 주제를 풀어내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관람객이 쉬어가며 전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고, 전시장 안쪽에 푸른 식물과 의자 등이 어우러진 공간을 마련했다. 천정에 매달린 녹색과

장동 콜렉티브가 기획한 ‘...분노 이후를 상상하라’ 전시에서 포즈를 취한 김소진(위)·이하영(아래).

흰색 현수막엔 텀블벅에 참여한 117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설치미술처럼 연출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모두 취소됐고 두 사람은 프로그램 워크북과 자신들을 소개한 뉴스레터를 따로 제작해 텀블벅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작가들과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신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의미있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앞만 보고 걸어가는 불나비’전에서 함께 연대하고 고민해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전시 후엔 아쉬운 게 많지만 작가님들과 전시를 진행하고 나면 저희도 많이 배우고 성장해감을 느낍니다.”(김소진)

화장시절부터 마음이 맞았던 두 사람은 2017년 10년마다 열리는 윈스터조각페스티벌, 5년 주기의 카셀도큐멘타, 베니스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그랜드 아트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고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인턴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소진씨는 전시기획을 뒷받침하는 정책, 예산 집행과정 등이 궁금해 정책실에서, 기획에 관심이 많은 하영씨는 전시팀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눌 때면 통하는 게 많았고 늘 즐거웠다. 예술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등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좋았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결심했다. “2년만 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보자.”라고. 그리고 장동에서 의기투합, ‘장동콜렉티브’를 결성했다. 그들은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다. 하영씨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면, 소진씨는 일정이나 예산 등 실제로 전시를 구현시키는 일에 강점이 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발전해가는 것이다.

졸업작품전인 ‘영자(말하기), 미명(듣기), 서현(쓰기)’전(2018)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이름을 주제로 한 전시였으며, ‘극약처방:예술가의 건강법’전(2019)도 공동기획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오일식탁’과 서울 연희동 전시공간에 직접 간이 부엌을 세팅한 ‘할머니의 반지하’전은 음식과 영상 매체를 통해 광주의 이야기를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줘 화제를 모았고 시립미술관 5월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진씨는 광주 토박이, 하영씨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소진씨에게 5·18은 일상처럼 다가왔지만 하영씨를 통해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했고 아이디어가 나왔다. 언젠가 소진씨가 하영씨에게 집안찬을 싸 준적이 있었는데 광주의 음식을 좋아하는 하영씨는 기회가 된다면 광주의 할머니·어머니들의 레시피로 책을 써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 오월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세대’에게 80년 오월 광주에 살았던 어머니들에게 바로 그때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드는 오월과 광주의 맛을 연계한 영상 작업을 완성했다.

올해 장동콜렉티브는 다양한 5·18 관련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기획한 5월 전시를 비롯해 518재단에서 공모한 연대사업에도 선정돼 ‘오월’을 소재로 광주와 서울 지역 청년작가 교류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로도 선정됐다. 그밖에 지역독립큐레이터 모임 ‘열린 전시’, 청년작가 모임 ‘영감의 영감’을 운영, 독서토론과 이슈브리핑, 크리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5·18 40돌 창작뮤지컬 ‘광주’ 9월 첫 공연

고선웅 연출, 4월13~14일 오디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전국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되는 창작 뮤지컬 ‘광주’의 첫 공연이 오는 9월 펼쳐진다.

연출은 고선웅(사진) 연출가가, 대부분 창작그룹 안팎단이 맡았다. 이번 창작 뮤지컬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차용해 제작되며, 국가권력의 폭력과 계약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한 편의대원(군인)의 고뇌가 중심 줄거리이다.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제작사 라이브가 주관하는 작품으로 ‘2019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광주문화재단, 라이브,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제작한다. 라이브는 뮤지컬 ‘팬레터’ ‘캠프’ ‘마리 퀴리’ 등 창작 뮤지컬을 흥행시킨 공연제작사이며 극공작소 마방진은 ‘낙타상자’ ‘홍도’ ‘리베르타르’ 등 작품성 있는 연극을 선보였다.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 연출을 진행했으며 5·18을 다룬 연극 ‘푸른 날에’, 소설가 조정래 동명 소설 원작의 ‘아리랑’ 등 화제작을 만들었다. 섬세한 시각과 날카로운 역사적식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편적이면서도 밀도있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은 오페라 ‘1945’의 최우정 작곡가가 맡는다.

한편 조연 및 앙상블 오디션은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13~14일 2차 오디션을 진행한다. 9월 광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첫선을 보인 후 10월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공연한다.

오디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학과지성사 새 인문시리즈 ‘채석장’ 출간

‘자본에 대한 노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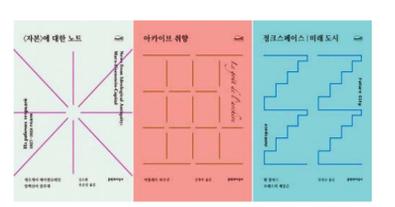
“당신은 거기에서 파편들을 찾을 수 있지만, 또한 찾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발굴 작업을 통해 우리는 파편들과 보물들 그 자체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문학과지성사의 새 인문시리즈 ‘채석장’은 논쟁적인 주장을 펼치는 정치, 사회, 예술 에세이 등을 소개한다.

이번에 나온 세 권의 시리즈는 모두 ‘자본에 대한 노트’, ‘아카이브 취향’,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

먼저 ‘자본에 대한 노트’는 영화감독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 1920년대 제작한 작업 노트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화 ‘이데올로기적 고대로부터 온 소식’을 기획한 독일의 영화감독이자 문화비평가인 알렉산더 클루게가 만든 소책자다.

다른 책 ‘아카이브 취향’은 프랑수아 역사학자 파



르주가 18세기 행사 사건 아카이브에서 느낀 불안과 매혹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보관된 아카이브를 통해 역사철학에 대한 제언을 전한다.

마지막 책 ‘정크스페이스-미래도시’는 네덜란드 건축가 콜하스의 에세이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제임슨이 콜하스 사유를 주제로 쓴 에세이가 묶였다.

한편 문학과지성사는 향후 ‘새로운 극우주의의 양상’, ‘저항하는 여자들’ 등도 펴낼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중앙박물관, 25일 ‘이집트실’ 네이버TV 중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문화관 내 이집트실 전시 설명을 오는 25일 오후 7시에 네이버TV로 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집트실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박물관에서 가져온 유물 94점과 디지털 콘텐츠로 꾸몄다.

2700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토티르데스

관과 미라,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 람세스 2세를 표현한 조각, 금-은·수정으로 장식한 따오기 관 등을 선보인다.

해설은 전시를 기획한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하고, 진행은 방송인 진양희 씨가 맡는다. 방송 도중 나오는 퀴즈를 맞힌 시청자 중 5명에게는 도록을 증정한다.

중앙박물관은 다음 달 5일까지 휴관한다. /연합뉴스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종 연회 행사”는**

#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